



# 농촌의 영유아 보육, 그 실태와 개선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 이슈 리포트

ISSUE REPORT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

## 전문가 기고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 개 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4호에서는 농촌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농촌의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복지정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확충’, ‘주말 아이돌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보육여건 개선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의 다문화 가정 및 조손가족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의 다양화, 시설접근성의 문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 등 농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촌의 영유아 보육 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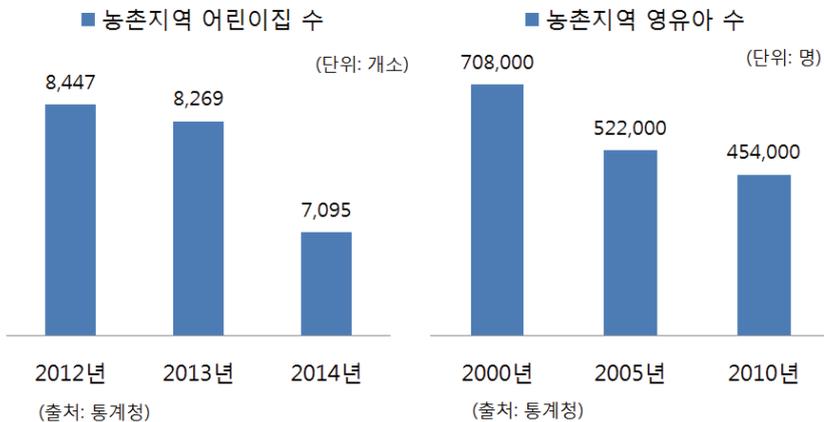
본 호에서는 농촌 보육여건에 대한 설명글 한 편과 농어촌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 기고 한 편을 실었다.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에서는 당면해 있는 농촌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는 농촌사회의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이어져왔으며, 이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 지역은 농촌주민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열악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의 0세~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수는 2000년 708천명, 2005년 522천명, 2010년 454천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보육기관은 정원 충족률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수급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수는 2012년 8,477개, 2013년 8,269개, 2014년 7,095개로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이러한 자녀양육의 문제는 자녀를 가진 중장년층의 도시로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발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도, 열악한 영유아의 보육여건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중인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의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4차(2016~20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위 3가지 사업의 추진을 주요한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란, 농촌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이동식 놀이교실(보육시설이 없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신축된 금산군 제원면 국공립 어린이집  
(출처: 금강일보 2014.10.26,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04>)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장난감도서 대여, 육아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을 포함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자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또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다.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업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자금재원을 충당한다. 지원자금은 리모델링비,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등의 시설비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의 성과목표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5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총 1,471백만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총 44천명이며, 지원금 규모는 27,914백만원이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통보한다. 수당지급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금은 국비 40~60%, 지방비 40~60%비율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한다.

##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이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 주말 돌봄방을 설치 및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 돌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보육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이



문경시 산동농협 농번기 주말돌봄방  
(출처: 시사문경 2014.07.08./ <http://www.sisamg.com/coding/view.asp?seq=7196>)

다. 총 1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245백만원이다. 지원금은 모두 국고에서 충당된다. 사업의 시행은 돌봄방 희망기관에서 농어촌희망재단에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을 신청하면,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농번기에 해당하는 4개월간의 주말돌봄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다.

전문가 기고

##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과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농촌의 영유아 수 감소, 농촌의 영유아 정책도 위축

농촌의 보육서비스는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농촌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근대화를 거쳐 산업화를 이루면서 나타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노인은 늘고 농촌 지역 영유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높아져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된 경향이 있으나 영유아 정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농촌은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은 이들의 수요 또한 포괄해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은설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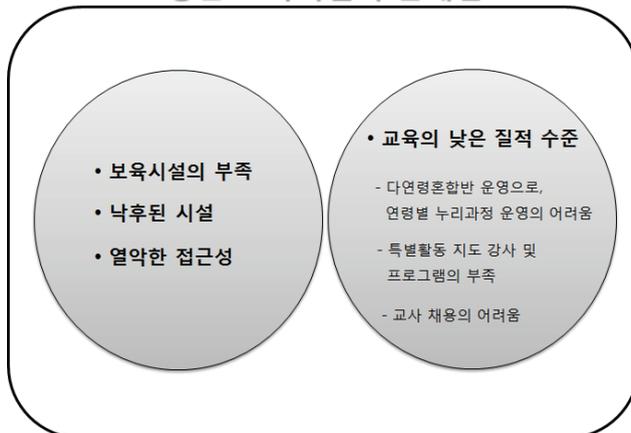
출처: 농촌여성신문 “어린이집 늘었지만 국공립은 4%에 불과” 2012.05.21.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

정부는 그간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우선적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전연령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로 도·농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 없는 보편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농촌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 교사 수당,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버스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 신규시설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낮은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의 문제 안고 있어

그럼에도 농촌 영유아 보육은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긴 이동 거리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수적으로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해 낮은 수익성을 우려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하는 민간 시설의 진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 시설이 적어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서문희 외, 2011).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어린이집의 경우 학력이나 능력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 유치원의 대다수가 공립병설유치원이고 많은 경우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해 다연령혼합반을 이루고 있어,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에 적절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또한 읍면 소재지에만 국공립 및 법인시설이 설치되어 농촌 가정 영유아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달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 농촌 보육시설의 문제점



이 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정책은 미진하며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한다면 농어촌의 보육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 연령혼합학급으로 운영, 교사의 부족, 특별활동지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 낮아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농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 구성 형태를 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을 혼합하여 지도하는 ‘복식학급’ 구성 비율이 높음이 드러난다. 아동 인구가 적고 시설 공간이나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인 ‘누리과정’이 연령별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학급 유형별 설치율

(단위: %)

유치원 학급 <sup>1)</sup>	3세학급			4세학급			5세학급		혼합연령 복식학급
대도시	69.6			80.4			90.6		25.4
중소도시	63.4			74.9			85.9		22.5
농어촌	47.2			50.9			53.5		37.1
어린이집 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연령반		
대도시	47.8	82.0	86.8	54.4	35.1	31.1	35.5		
중소도시	45.5	80.0	86.5	48.5	29.5	26.0	43.5		
농어촌	39.0	81.8	82.8	59.1	30.5	29.1	47.3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에는 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 근무하는 교사는 도시지역보다 20대 연령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40~50대 비율이 높은 편이며 어린이집은 30~40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할 때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교사도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지속 근무를 보장하기 힘들다. 농촌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학력은 평균적으로 도시에 비해 고졸 비율이 높고(농촌:도시=11.6%:10.4%)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은 상당히 낮다(농촌:도시=23.4%:36.7%). 향후, 교사의 보육 활동 수준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과정 이외 특별활동인 음악이나 체육 교육 활동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농촌이 그 비율이 낮고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 면에서는 예체능과 교구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높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는 음악·미술·운동 등 예체능 특별활동을 지도할 전문 강사나 프로그램을 농촌의 영유아 기관이 도입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농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인근의 다른 기관과 협동하여 강사를 초빙하거나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의 사례도 있었다.

##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의 비율 높아

농촌에서 미취학 연령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특성을 보면 몇 가지 뚜렷한 모습이 두드러진다<sup>1)</sup>. 첫째, 농촌 가구는 도시지역보다 가구원 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자녀 수 또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다. 농촌(읍·면) 지역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구원 수는 평균 4.12명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1) 「서문희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분석함.



출처: 중앙일보 2012.09.28. "농촌다문화 아이들, 종일 휴장난만" <http://news.joins.com/article/9455697>

3.88명이며, 두 자녀 이상인 영유아 가정의 농촌은 67.4%이나 대도시는 53.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조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이 18.1%로 중소도시가 9.1%인데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즉, 농촌의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제와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풍부한 인적 환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 영유아 자녀의 어머니는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령이 낮고 특히 20대의 젊은 어머니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력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도시지역보다 낮고 특히 어머니의 경우 무학이 1.7%이고 중졸 이하 학력이 8.1%로 중소도시에 비해 4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측면의 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농촌 영유아 가정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경우가 많다. 즉, 농촌에는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높는데 2012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농촌 영유아 가정의 8.2%(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3.9%)가 외국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이다. 영유아 양육에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손가구의 비율도 1.1%로 농촌이 도시보다는 10배로 높다. 한편 2015년 조사

(김은설 외, 2015)에 따르면, 농촌에 소재한 유치원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가 평균 19%이고 조손가정은 5.5%, 한부모 가정은 6%에 이르러 유치원에 다니는 농촌 아동의 30%가량이 특별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한 가정환경적 조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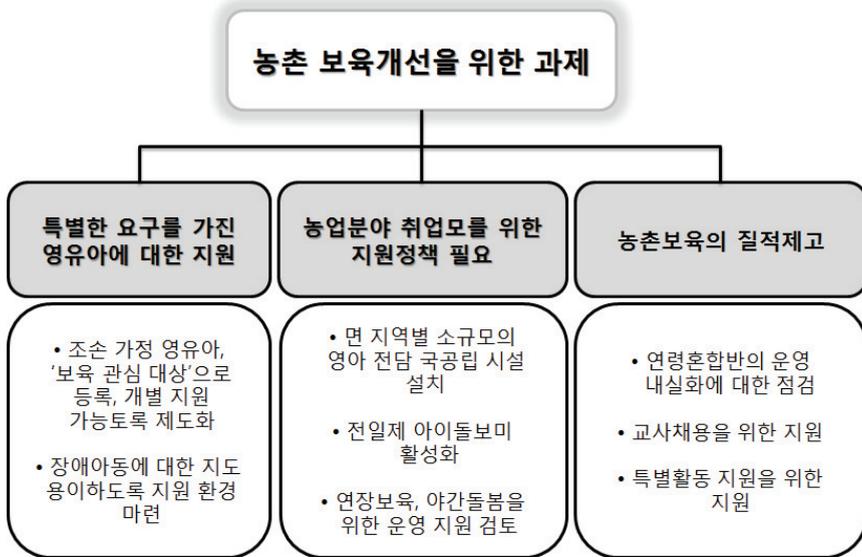
## 개별 가구만으로 감당이 힘든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아동 보육에 사회적 관심 필요

농촌 영유아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sup>2)</sup> 및 다양한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농촌 보육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즉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 농촌이 가진 특수한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먼저 조손 가정 영유아를 ‘보육 관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조부모 양육가정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조손가정 영유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조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제도 등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을 유도하며,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이용한 개별 안내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비교적 농촌에서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이용하여 문화적 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등록된 조손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장애 또는 문제 행동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지도를 보다 용이하게 할

2)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영유아수는 적지만 농촌에서는 인지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법에서는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기준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3명이 이하이더라도 이들을 위한 지원 교사,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접근성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이 장애유아를 위한 거점 교육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하원 차량과 노선을 확보하여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 면 지역 등 취약지의 보육시설, 서비스 확충해야

농촌은 취업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공급

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0-2세 영아가 입소할 수 있는 영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진입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이므로, 소규모의 영아 전담 국공립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면지역 별로 세밀 하게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영아에 대한 전일제 아이돌보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내 아이돌보미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도 생 각해볼 여지가 있다.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와 유치 원, 또는 마을회관 등 육아지원을 위한 공간을 협조 받아 영아보육수요에 대한 대 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농촌은 농업을 비롯한 취업모의 비율이 높아 야간이나 휴일보육 운영율이 높고 이용영유아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연장보육, 야간돌봄을 위한 운영 지 원이 현실에 적절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순회교사 투입, 공동 강사 활용 등 농촌 여건을 고려한 해법 모색해야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는 먼저, 농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연령혼합반의 운영 내실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내실화를 위한 한 가 지 방안은 누리과정 진행을 충실하게하기 위해 교사를 추가 투입하여 연령별 수업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sup>3)</sup> 농촌지역 유치원의 경우 70% 이상이 교사 1명만이 있는 유치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순회교사 투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지 원되고 있는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 교사의 근무 시간이 길고 업무가 과

3) 김은철·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다하고, 농촌에서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조 교사는 교사에 대한 지원 인력이라는 점에서 자격이나 학력 등을 완화하고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하여 채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 또한 검토해볼 만하다.

한편,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리적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특별활동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행정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특별활동 강사풀을 구성하거나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현재 농촌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농촌 근무 수당에 더하여 보육교사, 유치원방과후전담교사,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 교통비, 주거비 등의 추가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1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2 서문희·도남하·송신영(201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방안. 농림수산식품부·육아정책연구소.
-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4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5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발간예정).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ISSUE REPORT

**농촌의 영유아 보육, 그 실태와 개선 과제는?**

---

인 쇄 2016. 03.  
발 행 2016. 03.  
발행인 최세균  
기 획 심재현, 조미형  
편 집 유은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